

98년 7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3월 24일)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 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 1) 에포레 (문서 참조)
- 2) 총여 10주기 행사
- 3) 세내기를 위한 26일 프로그램 (편정식 1명 대면)
- 4) 예산안-우리안, 총학안(문서참조)

내용

5) 자치/단체 총회 (난자. 자원집)

① 각국 위 터미.

②

3. 공지 사항

- 1) 이대 페미니즘 문화제 행사를 보러 갑시다.
 - * 25일 수요일 <강연>-가정관 319호 6시
'사랑, 그 죽이는 이야기' 강사: 김지혜(98 이대 여성학과 졸업)
 - * 26일 목요일 <여성주의 단편영화상영>-가정관 318호 6시

4. 다음주에는...

- 1) ~~총여 10주기 행사 실무~~
- 2) 자치단체 총회를 위한 각국 기획서 써와서 얘기하기

보내는 사람 : 애포레

받는 사람 : 제 10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의 입장' 문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집행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틈틈이 회장, 부회장님과 의논을 해왔고, 내부 논의를 통해 애포레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애포레는 총여학생회의 집행부로서 활동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집행부 위상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탁아사업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에 따라 애포레가 바뀐다면 활동에 큰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집행부로서 총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하기에는 애포레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별 기구 제안'에 관하여 무리가 있다고 보신다면 애포레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내 활동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90년대 초 영유아 보육법을 위한 투쟁이후 탁아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학외활동을 학내활동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 논의를 통해 특별기구 제안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치 단체 제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으나, 이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치 단체 회의 안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동아리로 나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의 성격상 단기간에 결정될 수 없으므로 자치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4일 집행부 회의에서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총여학생회 안에 그 동안 애포레가 존재했던 이유나 여성운동과 탁아 운동에 대한 애포레의 입장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 여성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총여학생회가 수립되고, 그 외의 여성문제 관련 단체들이 공식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저희 애포레가 활동을 시작한 때인 80년대 말~90년대 초에 들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포레'는 90년에 총여학생회의 탁아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가를 따로 모집하여 활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 자활가들과 총여 집행부에서 탁아문제의 재인식과 전문적인 활동의 필요를 공감하여 다음해인 91년부터 자체적인 조직의 정비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우리학교 뿐 아니라 서울대, 서강대, 국민대, 숭실대 등의 여러 학교 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내의 각 여성운동 모임에서는 탁아문제를 그다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즉, 학내의 여성운동 단체들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내의 여성운동을 '학생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학내의 탁아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하는 여성운동이라면, '탁아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탁아운동'은 그 전부가 여성문제에만 관련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 속의 여성 - 특히 한국사회 속의 여성 - 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한 가운데에 '탁아·육아'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육아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꿈을 버리는 여러 어머니들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쫓으려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어머니'라는 질책을 홀로 짊어지고 가야하는 어머니들의 예를 구태여 자세히 들지 않더라도 인지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잘못된 사회의 구조 때문이고, 탁아를 어머니의 육아 보다는 훨씬 질 낮은 '대리육아'로 보려 하는 사회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각 가정에서 떠 넘겨 버리려는 사회 체제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육아로부터의 해방이 가사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가장 일차적인 여성 해방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코앞에 닥친 현실로서가 아닌,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변혁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탁아·육아 문제는 여성 운동의 중심적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여학생회 10주기 행사에 관하여

오늘이의 빈약한 정리

일단 우리 안에서 정해진 것은

시간: 5월 16일

장소: 푸른샘

담당자: 강지

정도의 실무와

내용적으로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선배들과 지금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는 우리들과의 작은 간담회 정도?

-전망 고민하기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이하 무엇인가를 써 보려 했으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군요... 얘기를 많이 해 봅시다.

①총여
②학부여성위원회의 변경
→ 여성위원 상설화
.....

98년도 총학생회의 총여학생회 예산 책정안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과 요구안

발신 :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수신 : 제/3/학/명 제 35대 총학생회

- 문서차례 : 1. 여성운동 그리고 총여학생회
2. 여성운동과 여학우들의 요구-학생회가 책임질 수 없다
 3. 자치단체들의 활성화
 4. 총학생회 안(총액대비 5%)에 대한 입장
 5. 총여학생회의 입장과 요구안

1. 여성운동 그리고 총여학생회

여성운동의 유일한 통로-총여학생회 건설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학도호국단이라는 군부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에서 광범위한 대중투쟁에 의해서 학생자치권력의 학생회가 건설되고 학원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활동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대중자치조직 건설의 움직임은 학생운동안에서 여성학 연구모임들을 생겨나게 하였고 87년초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고 대중조직이 건설되면서 소모임적 여성운동단위들은 조직 구조의 전환을 시도한다. 즉 여학생 운동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총학생회 체계로서는 이를 담보해 나갈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이다. 이런 인식하에 여학생들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의 관점이 선 여성운동론을 정립하고 대중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 조직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 다양한 모임을 확대 발전시켜 조직기초를 다지고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등의 조직내용을 준비하고 내용을 축적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여기에 운동분리주의라거나 조직만능주의라는 등의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88년도 이후에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연세대에서도 88년에 정식으로 총여학생회가 출범하였다.

이런 총여학생회의 건설은 성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학생 대중자치조직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동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단일한 운동이념이 낡은 오류속에서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며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떠맡게 되었다.

부차적인 운동으로 취급되어온 여성운동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국통일', '노동해방'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설명해 주듯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엽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학생운동의 절대절명의 진리로 위치하게 되고, 학생운동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대사회적인 투쟁들을 벌여내고 있다. 그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학생운동은 자신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과정은 학생운동의 이념으로써 '통일'과 '노동'이라는 단일한 명제를 채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타의 다른 운동의 영역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운동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주변적인) 운동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사실상 식민지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어야만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나 노자간의 모순이 해결되면 여성억압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십보 백보다.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을 단일한 모순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과정속에서 여성운동은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있어서도 주변적으로 위치지워져 온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교수에게 강간 당한 여학우가 학교명예를 운운하는 거대 집단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폭력적인 논리이다.

여성운동의 현재-연세 학내를 중심으로

1)성정치운동의 시작

95년 성정치 문화제는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그 이전에도 총여학생회는 계속 존재해왔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오히려 성정치 문화제에서 급격하게 터져 나왔다. 사실 이전의 총여학생회의 역할이란 앞에서 얘기한 중심운동의 부차적인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에 기대되는 역할, 그 정도였다. 그만큼 독자적인 사상적 기반과 활동 메커니즘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성정치 문화제는 그 후 급격하게 다른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운동의 여러 가지 단위들, 예를 들어 위원회, 소모임, 연대모임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2)여성자치연합-공존하는 다양성, 여성적 연대의 가능성

연세 내에서도 다양한 운동단위들의 활성화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97년 여성자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조직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부차적인 운동단위로 끌려다니던 총여학생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과 함께 학생회 질서로 포괄되지 않는 급진적인 운동단위들과의 본격적인 연대체였다는 점에서 여성자치연합은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안에서 태동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된 사상적 기반을 통해 성급하게도 가치절하를 해 왔다.

3)여성주의 총여학생회

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이런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성화의 맥락 속에 분명히 위치한다. 총학생회를 위시한 각 단대 학생회 단위에서 여성문제를 얼마만큼이나 풀어낼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상이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으로 읽히는 공/사의 논리 속에서 공적이고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보이는 '학생회'구조에 여성들은 단지 정치에 무관심한 단일한 주체로 상정된다.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운동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통로이다. 물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자치질서의 활성화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제발 여성운동을 실천적 철학과 이론이 부재한 부문운동으로 위치짓지 말라. 현재 학생운동은 '위기'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다. 다른 방식의 운동을 고민하고 다른 주제들에 조명을 비추는 우리의 운동에 대해, 학우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일상을 정치화시켜내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숙고해야 한다. 학우들의 요구는 단지 학생운동의 세련됨이 아니다. 구호 하나 패셔너블하게 쓴다고 해서 학생운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연세 안에서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운동 전략을 통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낼 것이며 하나의 운동세력 집단으로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운동안에서 표출할 것이다.

2. 여성운동과 여학우들의 요구-학생회는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투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학생운동 세력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급진적임을 자처해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성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공약 하나도 변변히 내 오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97년 선거를 통해 현재 각 단위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의 선거 공약에 여성문제 관련 또는 여학우들의 요구가 포함된 경우는 문대, 상대, 교과대, 법대 단 4곳뿐이다.

-여학생 휴게실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여학생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대의 경우 여학생 휴게실은 당연히 상대학생회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35대 상경대학 학생회 선거 공동 정책 자료집 중 p.19>

-여성학 소모임을 만들겠습니까!

혹시 페미니즘을 여성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신화로 인해 일상에서 제약받는 사람들은 비단 여성만이 아닐 것입니다.... 14대 교과대 학생회에서는 작은 실천의 하나로 여성학 소모임을 제안합니다.

<14대 교과대 학생회 선거 자료집 중 p.20>

그 외 각 단위 학생회에서는 총여학생회의 물음에 대해 별 구체적인 상이 없다는 답변들을 하였다. 물론 학생회가 모든 문제를 전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우들의 요구와 이해에 부응해야 한다는 학생회 본래의 취지를 볼 때 이것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인가? 뿌리깊은 성차별주의와 초역사적인 가부장제가 연세안에서만 없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총학생회의 경우 현 35대 총학생회를 비롯 당시 출마했던 모든 팀들이 여성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대체로 성폭력 자치규약의 문제와 여학생 휴게실 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위원회(준)을 띄운 상태이며 성폭력연대회의와 함께 깊이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만약에 총학생회 출마팀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의 하나 정도로 여성공약을 끼웠고 이제 와서 총여학생회가 할 일이라니 하고 방관하는 모습은 학생운동이 그토록 비판하던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치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학생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최소한 비판적인 관심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 토를 달지는 말 일이다.

3. 자치단체들의 활성화

여성자치연합으로 모였던 여성관련 자치단체들은 현재 활발히 자기 정체성의 확립하는 작업과 함께 세미나, 포럼, 여성문화예술실험, 여학생회로서의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치단체들의 위상은 학생회질서라는 제도내에서 상당히 애매한 위치이다. (그러나 이과대 여학생회의 경우에는 학생회 제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과대 학생회의 지원금과 총여학생회 지원금은 정식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안해 주는 것으로서 항상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총여학생회가 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히 돈 몇 푼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망의 형성이다. 자치단체들이 학생회가 하지 못하는 전연세인 혹은 각 단대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펼쳐낼 때 총여학생회는 재정과 공간지원, 그리고 그들 사이 또 총여학생회와 그들의 관계망 형성에 노력한다.

현재 3.8 세계여성의 날을 사회대 beyond와 치뤘고 학관 여학생 휴게실 관리와 문화 공간으로 꾸미는 문제를 the other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료-학술국은 이과대 여학생회 생활도서관과 함께 공동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또 총여학생회 공간을 자치단체들의 세미나와 회의를 위해 대여하고 있으며 공간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작은 선전물 하나도 총여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노력들을 함께 모아보고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자치단체 총회(가칭)'를 4월 둘째 주에 가지기로 하고 현재 자치단체들과 준비모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정한 다양성의 연대를 위한 노력들이 감안되기를 바란다.

4. 총학생회 안에 대한 (총액 대비 5%안)에 대한 총여의 입장

그 동안(90년도 이후)의 총여학생회비는 90년도 즉 5대 총여학생회와 역대 총여학생회 집행부에 따르면 그 해(90년) 확정된 "총액대비 5%"의 공식에는 연도별 여학생 수 증가 추이가 감안되거나 공식 자체가 정식화되지 않았고 그 당시 수령 금액이 굳어지면서 관성적으로 일정 금액이 할당되었다. (97년도 총액대비 3.6% - 97.1, 2학기 학생 회비 정산내역참조, 96년도 총액 대비 4%로 추정됨 - 96년 11월 일상/자치/저항문화 기획단 자료집 [너의 일상에 침을 뱉어라] p41의 제 9대 총여학생회장 신유정 씨의 글 참조)

각 연도별 1학기 신촌 캠퍼스 재학 여학생 수 및 비율(전체 재학생 대비)

	90년	92년	94년	95년	96년	97년
여학생수/전체	4235/16408	4209/16548	4728/17642	5030/18328	5262/17914	5612/17653
백분율	25.8%	25.4%	26.8%	27.4%	29.4%	31.8%

(각 연도별 교무처 학적과 학생명부 中)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액대비 5%"가 공식이었던 90년도에 비해 90-97년도 여학생 증가율은 23.26%(31.8-25.8/25.8)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신입여학생수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90년도 5%안을 98년 총여예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23.26%의 여학생 수 증가율을 "총액대비 5%"에 적용해 보면 약 6.2%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작년(97년)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성립이 안되고 건준위 체제도 3월 경 무너진 이후 총여학생회가 수행해야 했을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수 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98년 새로 꾸려진 제 10대 총여학생회는 지난 해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졌다. 이는 98년 예산 수립시 감안될 요소라 보여진다.

이에 총학생회안인 "총액대비 5%"는 그 동안의 여학생 증가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안이며 지난 11월 총학생회 선거시기 2차 유세 (기자간담회) 중 현 부총학생회장님의 발언("여학생회비를 따로 걷는 것은 말이 안되며 총여학생회의 예산은 늘어나야 한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 3혁명 선거 자료집(p64)에 실린 여성관련 공약들이 총학생회 1년 사업계획(학운위 수련회 자료집)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볼 때 총학의 학내 여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이 잡혀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98년도 총여학생회 예산책정에 대한 총여학생회 입장 및 요구안

1. 현재 연세 내에서 여성운동은 총여학생회를 비롯, 각 자치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내면서 독자적인 위상과 철학,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활동적 성장들을 총학생회-단대학생회 라인이 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

▶ 연 사회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데 동의한다면 예산 증가 요구를 단순히 여학생 비율증가로 인한 부채 정도로 인식하여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 총학생회는 여성관련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고 총여학생회 활동에 진정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 여학생 비율 증가와 더불어 여학우들의 요구도 높아 가는 것은 당연하다.

▶ 따라서 현재보다 여학생 비율이 낮았던 당시의 5%예산 책정을 현재 상황에 관찰시키려 하는 것은 명분에 어긋난다.

3. 위에서 설명했듯 수치단순대비로도 총여학생회는 최소 6.2%의 예산을 책정 받아야 하며 단순히 수치로 볼 수 없는 여성운동의 성장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전체예산 7%책정을 주장한다.

98년도 특별공동사업비 책정을 위한 총학생회안

1. 97년도 특별 공동사업비 내역

특별공동사업예산

오리엔테이션	₩7,000,000
학생수첩	₩16,000,000
노수석추모제	₩11,000,000
4.19기념일	₩1,000,000
총장배교내체육대회	₩1,000,000
대동제	₩27,000,000
이한열추모제	₩6,000,000
농활	₩6,000,000
한가위귀향단	₩3,500,000
연고제	₩30,000,000
총장배교내체육대회	₩1,000,000
선거	₩6,000,000
졸업기념품	₩8,000,000
상층간부활동비	₩7,000,000
한총련분달금	₩12,626,000
소계	₩143,126,000

총액대비 41.91%

전년도
예산액

1. 98년도 특별 공동사업비 예산내역

행사명	예산	전년대비증감	비고
오리엔테이션	₩8,000,000	+₩1,000,000	기집행
학생수첩	₩17,000,000	+₩1,000,000	기집행 (실질적인 인쇄비 증가)
노수석추모제	₩6,000,000	-₩5,000,000	
4.19기념일	₩0	-₩1,000,000	
✓총장배교내체육대회	₩1,000,000	0	
대동제	₩27,000,000	0	
✓이한열추모제	₩6,000,000	0	
현장활동	₩6,000,000	0	
한가위귀향단	₩3,500,000	0	
✓연고제	₩30,000,000	0	
✓총장배교내체육대회	₩1,000,000	0	
선거	₩6,000,000	0	→ ↓. (회칙개정: 임직하게) 독립된 예산
✓졸업기념품	₩8,000,000	0	
✓회장단활동비	₩3,000,000	-₩4,000,000	
한총련분달금	₩12,626,000		(총액의 3%로 추후에 확정됨)
소계	₩135,126,000	-₩8,000,000	총액대비 39.56% 전년도 대비 ↓

※ 전년도에 대한 차액 8000000원을 예산자치제의 예산으로 확보 → 총액이 약간 줄고.

(예산안 제출 시 총액 일정 예산)

총액심사: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예산 배분에 관한 참고자료

1. 전년도 기준 98년도 학생회비 예산 배분안

기관	비율	비고
총학중앙	15.31%	
단 대	24.84%	
자치기구배정	20.29%	동연 및 총여 작년동결을 가정했을 경우
특별공동사업	39.56%	
계	100%	

※ 총여학생회 전년도 3.61%가정

2. 96년도 이전의 총여학생회비 4.5%적용시

기관	비율	비고
총학중앙	14.97%	-0.34%
단 대	24.29%	-0.55%
자치기구배정	21.18%	동연 동결, 총여 인상분 반영했을 경우(가정임)
특별공동사업	39.56%	
계	100%	

※ 총여학생회비의 증가분 0.89%는 총학생회 중앙 예산과 단대학생회 예산에서 그 비율만큼 감소로 보정

작년기준 총여학생회비의 증가분 ₩3,039,706

0.381225(총학 대 단대에서 총학비율) ₩1,158,812 0.34%(총학중앙 감소분)

0.618775(총학 대 단대에서 단대비율) ₩1,880,894 0.55%(단대회비 감소분)